

비금도 서산사와 소적새 마을 시금치·소금 인연 7년

섬마을 신도들 십시일반 후원

“오일 때가 됐는데...” 강원도 원주 소적새 마을 식구들은 요즘 한 스님을 손꼽아 기다린다. 스님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승합차에 시금치를 가득 싣고 오곤 했다. 그 시금치가 어찌나 맛있던지...

시금치로 맺은 인연. 그 인연 속에는 넉넉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이나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따스함이 스며있다.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산사 주지 근원스님과 소적새마을 식구들과의 만남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5년 우연히 소적새마을에 가게 된 근원스님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곳 장애인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스님으로서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절에 돌아와서 신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넉넉지 못한 형태의 신도들 역시 소적새마을을 후원할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때 누가 만

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재배하는 시금치라도 후원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곳 시금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최상품.

그러나 운송이 문제였다. 목포에서도 뱃길로 3시간 이상을 가야하는 작은 섬 비금도에 서 소적새마을까지 시금치를 배달해줄 방법이 난감했다. 이때 스님이 나섰다. “이렇게 마음을 냈으니 어떻게든 실천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며칠 후 스님은 신도들이 모아 준 시금치 20Kg들이 40여 박스를 싣은 승합차를 배에 싣고 소적새마을로 향했다. 목포에 내려서 혼자 운전하며 10시간 이상을 달린 끝에 소적새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시금치 박스를 내려 놓자마자 차 한 잔 얻어 마시고는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 생색내기 않기 위해서다.

교회가 20여 개나 되는 비금도에서 서산사는 이곳의 단 하나뿐인 사찰. 신도수래야 50여 세대에 150여명 안팎에 지나지 않지만 18년 전에 이곳에 온 근원스님과 신도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시금치를 전달지 4개월쯤 뒤. 스님과 신도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도 소적새마을에 보내자고 마음을 모았다. 비금도는 전국 수요량의 20분의 1을 생산해내는 천일염 생산지. 8월 어느날 근원스님은 50Kg들이 소금 30여 박스를 싣고 다시 소적새마을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서산사 신도들의 마음과 소적새마을 식구들은 일년에 꼭 두 번 만나게 됐다.

“한해 두해 하다보니 벌써 7년이 됐네요.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소중한 인연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있다고 돕는 것이고, 없다고 도울 수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신도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지요.”

근원스님과 신도들은 올해도 이달 10일경 시금치를 소적새마을에 전해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날씨가 추웠던 탓에 예년에 비해 수확이 좀 늦어졌지만 시금치를 맛있게 먹는 소적새마을 식구들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면 천리길도 가깝게만 느껴진다. (061)275-4893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나눔의 집은 지난 1월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및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 앞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나눔의 집 ‘봄기운’

자체감사 등 정상화 방안 수립

‘후원회 모임’ 추진도

나눔의 집이 1일 오후 3·1운동 82주년 기념식을 갖는 등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법인다운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후원자들도 후원회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해진스님 사건을 계기로 나눔의 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복지법인 나눔의 집 법인사무국장인 선임인 이남재씨는 “그동안 마비됐던 행정업무와 역사관 관리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국장은 또 “현재 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고, 제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명유실했던

이사회 기능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복지문제까지 개선하는 등 법인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7일 열리는 이사회에 건의할 생각이며 나눔의 집 원장도 이때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문으로 떠도는 해진스님의 공공회이 추진되고, 후원자들도 후원회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해진스님 사건을 계기로 나눔의 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일부 나눔의 집 후원회원들은 2월28일 모임을 갖고 나눔의 집이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인만큼 이번 일로 인해 더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으고 ‘나눔의 집과 함께 있는 후원자 모임’을 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우 기자

히말라야 지산암

“한국불자 인등불사 동참 기다립니다”

한 스님이 히말라야에 암자를 마련하고 현지 포교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산스님은 네팔 히말라야 산중에 지산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과 포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산암이 있는 곳은 화염계 약전계에 나오는 운수보살이 지산암 인등불사에 참여해 승승한 인연을 쌓기를 바라고 있다.

지산암 인등불사 동참구좌는 NEPAL GRINDLAYS BANK LIMITED 102-0514136-251(예금주 EUNG LIP LEE)이며, 일인당 한 달 월 5천원이다. 우편주소는 P.O BOX 4930 KATHMANDU NEPAL.

한명우 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10살 어린이

김은진(10) 어린이가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99년 7월. 은진이는 은진이가 투병을 시작한 지난 1년반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 오면서 남아난 것 하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빠 종서군(15)의 골수를 이식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하지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하루 하루를 어렵게 견뎌오고 있는 은진 이네로서는 7천만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도와주실 분은 생명나눔실천회(02-734-8050)로 연락하거나, 은행계좌(동원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청년불자, 봉사 “관심”-교육 “불만족”

재가연대, 조계사 청년회 의식조사

청년 불자들은 봉사활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찰 청년회는 법회와 불교강좌를 통해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돼,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2월 27일 발표한 ‘조계사청년회 회원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은 교계 활동에 대해서는 불교시민사회 활동(25.2%)과 청년회 교류활동(19.1%) 포교활동(17.9%) 등을, 교계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애호 활동(26.7%), 환경운동(22.6%) 지역 시민사회활동(18.6%)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의 청년회 가입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법회에 참가하여 입

문(41.9%)하거나 청년회 교육에 참가하여 입문(22.9%)했다는 응답자가 많아 회원 수급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20.2%가, 회원교육에 대해서는 29.7%가 불만족을 나타내 신행 및 회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하고 싶은 강좌를 2개씩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경전교육(20.9%), 문화교육(19.3%), 교리교육(16.3%), 시민사회활동론(1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청년 불자들은 이밖에 ‘청년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 자기비(29.6%), 지혜(21.8%), 나눔과 화합(19.5%) 등을 제시했다. ‘조계종’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전통(32.9%) 참선(21.0%) 무소유(10.2%) 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는 폭력

(28.1%) 불화(17.5%) 구태의연(14.8%) 부정부패(14.3%)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계사청년회 전준호 회장은 “회원들이 각종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교리·경전 및 실용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한 교육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시민사회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청년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집된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106명이 응답해 95% 신뢰수준에 ±7%의 오차범위를 나타냈다. 김재경 기자

실상사 귀농학교

‘농업지킴이’ 모집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모태로 하는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교장 도법스님)는 농업 생명지킴이가 될 6기 학생을 모집한다.

귀농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초 강좌, 전문강좌, 농촌생활강좌, 시청각교육, 현장학습교육, 마을 나누기 등이며, 교육기간은 3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지원자는 전국 귀농운동본부 주최의 기초이론 교육 수료자 중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며, 교육비는 3개월에 50만원. 0631636-3776 김재경 기자



△정토회는 3월1일 1000일 정진 1주년기념법회를 보행했다.

쉽없이 이어진 통일기도

정토회 1000일 정진 1년

목탁을 치며 자신이 맡은 1시간 또는 그 이상을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응답하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진, 다음 기도자가 목탁을 치며 열매할 때까지 그 소리가 이어지면 자신이 하던 기도를 마친다. 통일운동과 수행이 하나된 기도는 그런 식으로 365일을 쉽

이 이어져 왔다. 하루 평균 28명이 릴레이 철야 정진, 연인원 1만220명이 동참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이 시작되던 1년이 되었다.

정토회(지도법사 범룡스님)는 ‘1000일 정진’ 1주년을 맞아 3월 1일 서울 정토법당에서 기념법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1절 기념식, 범룡스님의 1주년 기념법문, 유재경씨의 수행담 발표(통일의 원력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포상(개근상, 정진상, 통일패지상) 등으로 진행됐다.

1000일 정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업보고를 통해 주 1회 기도에 참가한 신도들은 평균 80명, 청년 불자는 40명, 월 1회 이상 참가자는 179명(2팀), 부부 동참자는 7쌍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니타 회 김해영 보살과 청년정토회 권운정 불자는 매일 기도에 동참했으며, 부산에서 온 일진행(65) 보살은 21일간 기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생활의 지혜·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력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 문 의 : (02)737-0090 직 (02)737-8881대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혈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옵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運 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